KMI 국제물류위클리
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

제783호
2026.03.13.
www.kmi.re.kr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감수 :** 이언경 **전화번호 :** 051-797-4913 **E-mail :** kdong@kmi.re.kr

목 차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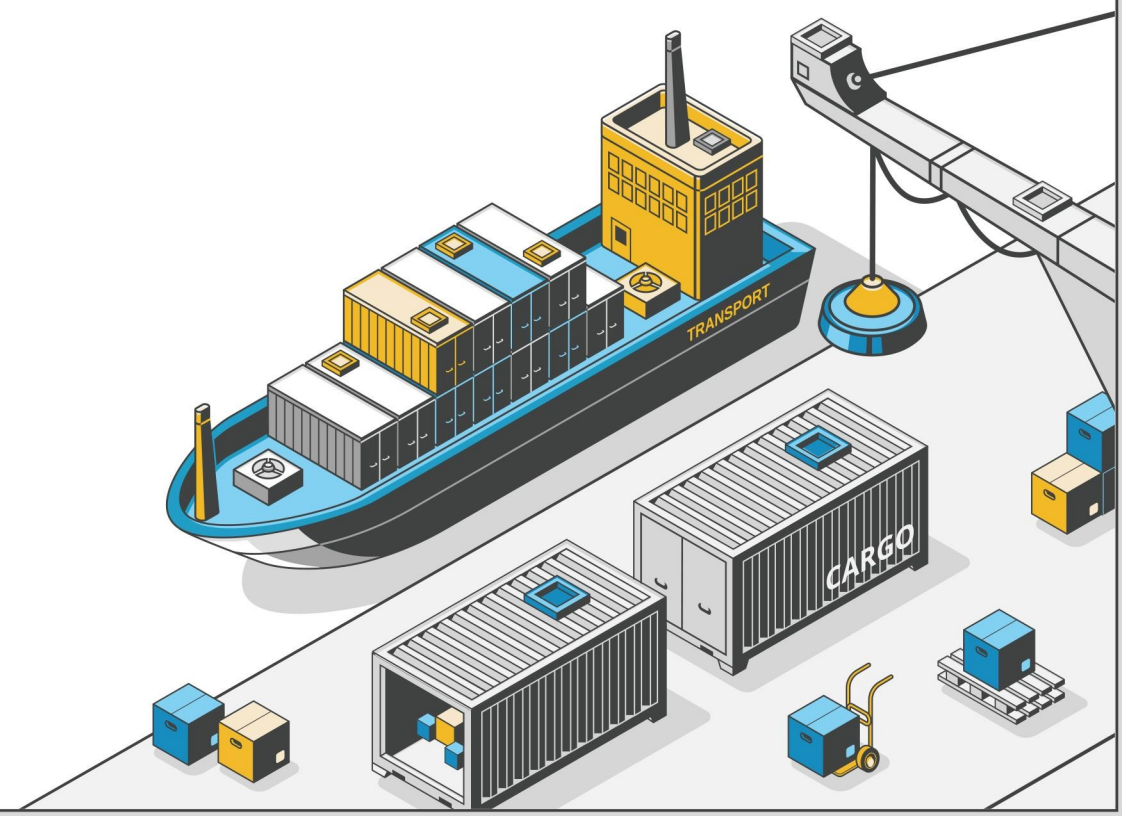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베트남-중동 해산물 공급망 리스크 확대
- CMA CGM, 'PEARL 서비스' 인도 아대륙까지 연장…미국 서안 직항 연결 강화

유럽 물류시장 동향

- EU, 불가리아 바르나·부르가스 항만 개발 본격 지원…유럽 공급망 다변화 가속

공지사항

-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국제물류 위클리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베트남-중동 해산물 공급망 리스크 확대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베트남–중동 해상 운송 차질 확대 및 냉장 해산물 물류망 직접 타격

- 이란–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베트남 해산물 수출 공급망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5%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관문으로, 봉쇄 시 중동 교역 전반에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전략적 요충지임
- 한편 중동은 베트남 해산물 주요 소비시장으로, '25년 수출액은 약 4억 1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바 있음
- 특히 팡가시우스(메기살)(1억 7,590만 달러, +18.6%), 새우(5,450만 달러, +19.9%), 기타 어류(+28.6%) 등 주요 품목의 중동 수출 비중이 높아 이번 사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실제 중동 지역은 호텔·레스토랑 중심의 고부가가치 수산물 소비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미–이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이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베트남–중동 해상 운송시 호르무즈 해협 통과 루트에 의존했으나 해협 봉쇄로 우회 항로 이용 가능성 증대

- 일반적으로 베트남 해산물은 하이퐁·호치민항 → 말라카 해협 → 인도양 → 호르무즈 해협 → UAE 제벨알리항으로 이어지는 해상 루트를 통해 중동 시장으로 운송됨
- 해당 루트는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환적을 포함한 아시아–중동 핵심 항로로, 평균 운송 기간은 약 15~25일 수준임
-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일부 선사들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등 우회 항로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해상운송 리드타임이 약 10~20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해상운임 및 해상 수출입 보험료 급등, 냉장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산물 물류비용은 30~50% 상승

- 베트남 수산물 가공 · 수출 협회(VASEP)는 이번 호르무즈 봉쇄로 아시아–중동 항로 운임이 급등하면서 컨테이너당 2,000~4,000달러 수준의 추가 할증료가 발생했으며 전체 운임은 약 50~80% 상승했다고 발표함
- 또한 전쟁 위험 증가로 인해 일부 보험사는 이란 및 페르시아만 운항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담보(War Risk Coverage)를 축소하거나 72시간 내 효력 종료를 통보하는 등 보험 조건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음
- 실제 Maersk, Hapag-Lloyd, MSC 등 주요 글로벌 해운사는 해당 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일부 항만에 대한 선적 예약을 중단하거나 전쟁 위험 할증료를 부과하고 냉동 컨테이너(리퍼 컨테이너) 또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해상 운송 보험료가 기존 대비 최대 10배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선사나 물류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 한편, 해산물은 냉장·냉동 상태 유지가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운송 지연이 발생하면 품질 저하와 폐기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는 특징을 지님
- 이번 미-이란 사태로 중동 지역 내 항만의 대기 선박 증가와 환적 지연 및 냉장 컨테이너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산물 공급망의 위험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항공 운송 역시 일부 공역 폐쇄와 항공편 감소로 정상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신선 해산물의 냉동 전환 운송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베트남 해산물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높아 시장 다변화 및 항로 변화 전망

- 베트남 해산물 수출업계는 호르무즈 봉쇄가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수출이 10~15%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희망봉 우회 항로 이용 확대, 오만·UAE 환적 허브 활용 증가 등 아시아-중동 해상 물류 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일본·미국 등 기존 시장 확대와 아프리카·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 전략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특히 해산물 수출은 물류 리스크 대응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면서 장기 운송 계약 확대, 보험 리스크 관리 강화, 냉장 보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됨
- 이번 사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상운송뿐 아니라 냉장·냉동 화물 중심의 콜드체인 물류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 향후 중동 항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해운·물류 기업들은 위험 해협 의존도를 낮춘 항로 전략과 콜드체인 안정성 확보 전략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https://avinews.com/en, https://www.vietnam.vn (검색일: 2026.03.09.)

하도연 연구원
051-797-4683, ehdudl@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CMA CGM, ‘PEARL 서비스’ 인도 아대륙까지 연장…미국 서안 직항 연결 강화

CMA CGM, PEARL 서비스 항로 인도 아대륙까지 확장

- CMA CGM이 PEARL 서비스의 기항 노선을 인도 아대륙까지 확장하며 인도 아대륙-미국 서안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 해당 서비스는 서인도(나바셰바, 문드라), 파키스탄(카라치), 스리랑카(콜롬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연결되는 항로로 운영될 예정임
- 선사는 이번 서비스 개편이 인도 아대륙-미국 서안 물류 연결성과 서비스 범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PEARL 서비스, 인도 아대륙 주요 항만 포함한 항로로 구조 개편

- 동향(Eastbound) 항로는 나바셰바(Nhava Sheva)-문드라(Mundra)-카라치(Karachi)-콜롬보(Colombo)-싱가포르(Singapore)-하이퐁(Haiphong)-샤먼(Xiamen)-난샤(Nansha)-얀톈(Yantian)-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순으로 운항할 예정임
- 서향(Westbound) 항로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광양(Gwangyang)-칭다오(Qingdao)-상하이(Shanghai)-닝보(Ningbo)-서커우(Shekou)-싱가포르(Singapore)-나바셰바(Nhava Sheva)-문드라(Mundra)-카라치(Karachi) 순으로 구성됨
- 이번 개편을 통해 인도 아대륙 주요 항만이 기존 아시아-미국 서안 네트워크에 포함될 예정임

인도 주요 항만에서 미국 서안까지 주간 정기 운송 서비스 제공

- 본 서비스는 인도 아대륙 항만에서 주간 정기 운항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로스앤젤레스까지 예상 운송 기간은 나바셰바 47일, 문드라 44일, 카라치 42일, 콜롬보 37일로 공시됨
- 해당 서비스는 중국 남부-미국 서안 노선인 ‘Pearl River Express’ 서비스의 항로를 인도 아대륙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약 1만~1만 3천 TEU급 선박 약 13척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간 정기 서비스 형태로 운영될 전망임
- 개편된 서비스는 APL Qingdao호가 2026년 3월 30일 나바셰바에서 출항하면서 시작될 예정임

기존 환적 중심 구조에서 직항 연결 확대 움직임

- CMA CGM은 그동안 인도-미국 서안 항로에서 아시아 환적항만을 통한 연결 서비스에 주로 의존해 왔음
- 대표적으로 Asia-Subcontinent Express(AS1) 서비스 등을 통해 인도 화물을 아시아 허브 항만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연결하는 구조였음
- 이번 서비스 개편은 인도 수출 물류의 직접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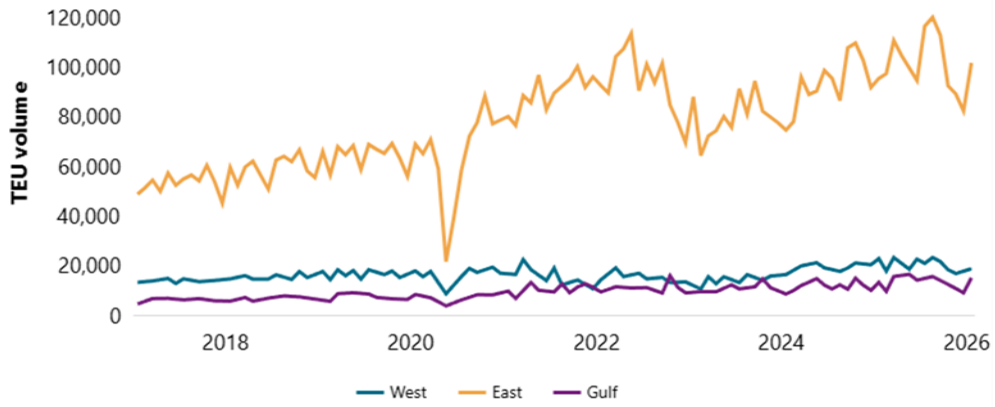
KMI 국제물류 위클리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인도-미국 교역 확대 기대 속 운임 및 물동량 증가 움직임

- 본 서비스 개편은 인도-미국 간 관세 완화 기대와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항로 수요 확대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업계에 따르면 나바셰바-로스앤젤레스 구간 현물 운임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약 1,500달러/FEU에서 3월 말 약 2,500달러/FEU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PIERS에 따르면 인도발 미국 서안 수입 물량은 '26년 1월 19,117TEU를 기록하며 '2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인도발 미국 서안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자료: https://www.joc.com (검색일: 2026.03.10.)

인도-미국 직항 서비스 확대는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 재편 흐름을 반영

- 선사들이 인도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인도발 해상 물류 네트워크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환적 중심 구조에서 직항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인도 수출 물류의 운송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도가 주요 생산·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www.joc.com, https://www.cma-cgm.com (검색일: 2026.03.10.)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유럽 물류시장 동향

EU, 불가리아 바르나·부르가스 항만 개발 본격 지원…유럽 공급망 다변화 가속

● **EU와 불가리아 교통부가 바르나 및 부르가스 항만의 인프라 현대화와 내륙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바르나 및 부르가스항은 흑해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주요 무역항으로 산업도로 및 철도 연계성이 높아 배후 물류지역에 대한 복합 물류거점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두 항만은 컨테이너를 포함해 액화화물과 벌크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물 유형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이에 EU와 불가리아 교통부는 바르나 및 부르가스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인터모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9년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 EU는 중앙아시아 교역의 유럽 진입 관문 역할과 EU의 "TEN-T" 프로젝트 상의 라인-다뉴브 회랑과 서발칸-동지중해 회랑의 주요 노드 역할을 담당하는 위의 두 핵심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 7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바르나항은 Varna West 및 PCHMV 터미널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철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Varna West 터미널의 경우 국영 운영사인 Port of Varna EAD의 440만 유로 투자, EU의 200만 유로 투자를 통해 터미널 운영 장비 고도화와 서부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강화함
- 해당 사업에 따른 구체화된 인프라 개발 계획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설정될 예정임
- 또한, PCHMV 터미널의 경우 민간 운영사 PCHMV AD의 300만 유로 투자, EU의 200만 유로 투자를 통해 기존의 하역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임
- 이와 관련, 36톤급, 50톤급, 100톤급 모바일 크레인 운영 환경을 고려해 신규 모바일 크레인의 세부 제원은 추후 설정될 예정임

● **부르가스항은 Dolno Ezerovo 터미널의 철도운송 저탄소화와 KRZ Port Burgas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철도연계 인터모달 기능을 보유한 Dolno Ezerovo 터미널의 철도 인입선 보수를 통해 항만 연계 효율성 높이고 관련 장비의 전동화 전환으로 친환경 운송체계를 수립할 계획임
- 해당 사업은 터미널 운영사 Despred AD가 추진할 예정이며, 약 4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또한 2개 선석으로 운영되고 있는 KRZ Port Burgas 터미널의 선석 생산성 향상과 화물 처리 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민간 운영사 KRZ Port Burgas AD가 81만 유로, EU가 89만 유로를 각각 투자할 계획임

불가리아 바르나항 및 부르가스항의 운영 현황

자료: https://www.seatrade-maritime.com, http://www.railwaypro.com (검색일: 2026.03.10.)

- **바르나 및 부르가스 항만 개발 프로젝트는 내륙운송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물류공급망의 운송루트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두 항만은 철도운송을 기반으로 항만-철도 연계 복합운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장거리 항만 인근 도로교통 혼잡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 운송부문 탈탄소화 규제에 대응해 저탄소 운송의 대체 경로 선택이 가능하며, 운송루트 다변화에 따른 대응 조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르나 및 부르가스 항만의 철도인프라 개선과 내륙 ICD 연계를 통해 항만의 내륙 연계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https://www.mediapool.bg, https://www.eufunds.bg, http://www.railwaypro.com (검색일: 2026.03.10.)

황제호 전문연구원
051-797-4685, hjh3904@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공지사항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6. 2. 20(금) ~ 3. 20(금)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개요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기업(법무/회계법인)을 통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

지원금액

최대 **2억원** 지원 (조사비용의 최대 **50%**)

2.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 물류공급망 분석 및 설계, 현지 물류시장 조사, 해외법인 설립 등에 소요되는 조사 비용 지원
① 해외물류시장 진출 사전 지원
②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 국외출장비, 컨설팅비 등 직접 비용
(단,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은 외부 자문 비용으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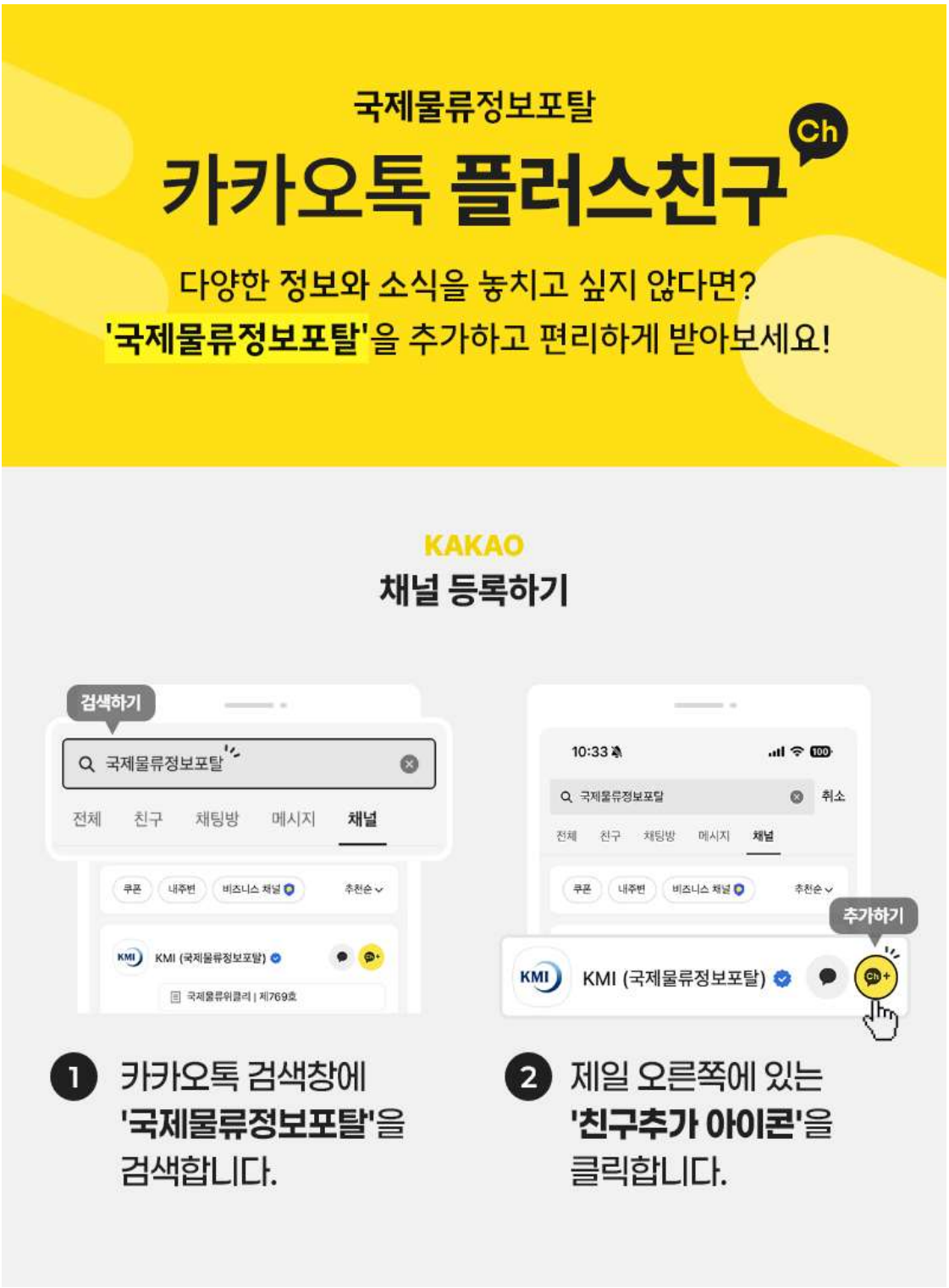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지원 (조사비용의 최대 **50%**)

제출방법 국제물류정보포탈(withlogis.co.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김동환 센터장 T 051-797-4913 E kdong@kmi.re.kr **성현정 전문연구원** T 051-797-4648 E hjsung@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공지사항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